

칼럼

임성욱 시인 · 사회복지학박사



국가 없는 아류 이기주의는 허상일 뿐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참으로 이상한 작태다. 안 산다고 하더라도 팔려고 노력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 얼마나 한국을 알았으면 이런 짓거리들을 하는 것일까. 참으로 슬픈 일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특히 한국당을 비롯한 자칭 보수들은 패거리들은 연일 탄지다.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속 시원하게 지지해준 적이 거의 없는 것 같다.

사실 진정한 '보수'는 국가를 지키려고 애쓰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사이버 보수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생명 유지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국민들은 애가하고 있다. 이번 일본의 악질적 사태로 분노심이 치솟을 때 시원한 사이드 역할을 하는 쪽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바

로 북한을 말하는 것이다. 연일 일문을 향해 십자포화를 날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22일 북한 노동신문은 "파렴치한 남강도의 전횡, 세차게 폭발하는 반일기운"이란 제목으로 일본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북한의 한 대남선전매체는 "과거정산을 거부하면서 대세에 역행하는 못된 짓은 일본의 고립을 더욱 촉진시킬 뿐"이라 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우리 민족에게 막대한 해악을 끼친 죄 많은 나라"라고 일갈했다. 이외에도 여러 각도에서 원색적으로 쓰아내고 있다.

그런데 정작 국내에서는 일부 치졸한 작가들의 쓰레기 춤이 괴롭히고 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청와대와 생각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죄다 친일파라고 딱지를 붙이는 게 옳은 태

도나.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대응해도 모자랄 판에 친일·반일 평가하기 하는 게 과연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느냐"고 했다.

말은 바로 해보자. 황 대표가 과연 단 한번이라도 진정으로 힘을 합쳐 대응하려 했는가를 나경원 원내대표는 "2년 내내 '북한팔이' 하던 정권이 이제는 '일본팔이'로 무능과 무책임을 덮으려고 하고 있다"면서 "저성정에 오랫동안 신음한 일본처럼 대한민국을 일본화하는 정부야말로 신친일파 아닌가"라고 했다. 마치 잘못되길 바라는 저주구독 찬 주술 같다.

민경욱 대변인은 또 어떤가. "문재인 정권에 충성하면 '애국', 정당한 비판을 하면 '이적'이라는 조수석의 오만함과 무도함에 국민들이 치를 떨 지경"이라 했다. 사실은 나날이 일그러져 가는 듯한 민 대변인

의 얼굴을 그만 보고 싶다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가 보다.

당리당략적 작태의 극치다. 그들의 안중에는 국가나 국민은 이미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사이버 보수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지지율이 나날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일부 희한한 언론도 마찬가지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말이다.

이들 언론들은 어쩌면 자연도태될지도 모른다. 일본어판에서 내부를 향해 직접 공격했다. 중앙일보는 "문재인 정권 발 한일관계 파탄의 공포", "다치고 '반일'이라는 우민화 정책=한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이다. 조선일보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언론이길 포기한 것과 같다. "한국은 무슨 낮짜기로 일본에 투자를 기대하냐?", "북미 정치쇼에는 들뜨고 일본의 보복에는 침묵하는 청와대"라는 제목으로 내부공격을 했기 때문이다.

이건 언론의 자유가 아니다. 과거 군사독재정권시절에는 깃소리도 못했으면서, 오히려 찬양을 했잖은가. 일부 일그러진 일본인들보다도 더 험한 발언을 했다. 도저히 대한민국 사람 같지 않다. 추한 몸부림은 역겹기까지 했다. 마치 중세 봉건제도가 무너져 갈 때 말라 비틀어져가는 기사 같다. 세르반테스가 환상해 그들의 흥분을 본다면 뭐라 할까.

社說

말 많은 '피의사실 공표' 손 봐야

경찰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피의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마치 그것이 사실인 양 세상에 인식을 각인시키는 것이기에 때문에 당하는 대상에게 인격에 치명적이라 할 수 있다.

울산지검의 경찰관 피의사실공표 사건 수사가 피의사실공표죄의 첫 기소 사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자 인권보호 사이에서 논란을 빚어 온 피의사실공표를 두고 이번 수사를 하는 경찰과 수사를 받는 경찰 모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기소 여부와는 별개로 수사공표의 기준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검은 지난 23일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 2명의 피의사실공표 사건을 형사4부에 배당했다.

그간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황의수 차장검사가 직접 사건

을 맡아 왔다.

전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현재 수사 진행 상황으로는 기소 여부 판단이 불가하다며 수사를 계속하라는 심의 결과를 내놨다.

형법 제126조는 수사기관 종사자가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08년부터 지난 해까지 11년간 접수된 사건은 347건이지만 기소 사례는 전무하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불기소 결정된 106건을 분석해 보니 범죄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한 경우가 많았다. 이현령비현령식의 법해석이 더 이상 혼란을 불러서는 안 된다.

이처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기대가 크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경각심 가져야

각급 학교 방학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전국 해수욕장이나 유원지, 계곡 등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장소라면 피서객들로 붐빌 것으로 예상된다.

소빙절에 따르면, 학교 방학과 휴가 절정기인 7월 하순에서 8월 중순 사이에 물놀이 안전사고가 집중되어 있으며, 인명피해 발생비율의 80% 이상이 피서객들의 안전수칙 불이행으로 발생하였다고 한다.

또한 장소별로는 하천(강)에서, 연령대별로는 10대 이하에서 가장 많은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시기적으로는 주말(토·일요일)에, 햇볕이 내리쬐는 12시부터 증가하여 14-18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여름은 작년보다 폭염이 덜할 것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물놀이 피서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휴가철

물놀이를 즐기는 피서객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주말(토·일요일) 점심식사 후 긴장이 풀리고 피로가 쌓이는 오후 시간대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은 국민 모두가 물놀이 사고예방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가장 중요하므로 ▲수영 전 준비운동 ▲물에 들어가기 전 심장에서 먼 부위(다리, 팔, 얼굴, 가슴 등)부터 물을 물고 ▲식사 후에서 곧바로 물에 들어가지 않는 등 물놀이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수영금지 등 위험 표지판이 있는 장소에서는 물놀이를 피해야 한다.

또한, 입수 전 바다의 상황을 파악하고 수면부족 시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음주 후 수상활동은 절대 하지 않으며 충분한 수분섭취에 유의하자.

한선근 / 보성119안전센터 소방위

수상구조대와 함께 안전한 물놀이를~

우리 영암군에서는 가천랜드에 연간 10만명이상의 국민들이 방문을 하여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물놀이를 하며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의 추억을 만들고 더위를 날려 버리기 위하여 각 지역에 있는 바다 및 계곡으로 여행을 떠나고 있다.

우리 수상구조대는 국민들의 행복한 시간을 지키기 위해 수상구조대를 운영한다.

수상구조대는 물놀이객 증가에 따라 안전환경을 조성하고 수난사고 및 인명피해 경감에 기여하며,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조성함에 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국민들의 휴가철에 따라 항상 긴장의 연속으로 출동대비를 하고 있으며 사건, 사고가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이에 따라 우리 영암119안전센터에서는 여행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7월 20일에 119구급대의 고정배치가

시작되었으며 본격적으로 7월 20일부터 8월 25일까지 고정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고정배치를 실시하여 물놀이 장소에서의 유사 시 인명구조 및 위험 제거 활동을 실시하며, 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를 시행하며, 이용객들을 위하여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들은 피서지를 도착하여 주변에 위험상황이 생길 경우 주변에 구조 및 응급처치를 위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에 어디에 있는지 반드시 숙지하기를 바란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주변에는 항상 소방공무원이 있으며 응급상황 시 119에 신고하고 신속하게 출동하여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항상 안전한 휴가철을 보내기를 바란다.

김태현 / 영암119안전센터 소방교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미아·가출인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1388
- ▲이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99

- ▲기상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인명알고콜 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수도 고장신고 121
- ▲전기고장신고 123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원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팩스 (062) 222-5547

대표이사·회장·발행인 김평호
편집인·편집국장 강서원

본사: 광주광역시 동구남문로 753번길 7
서울취재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세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